

나해 기초자료

대림 제2주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인권 주일

이 땅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고,
또한 많은 이들이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인권 주일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모든 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장애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겠다.

사회 교리 주간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복음화(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가르침.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은

가톨릭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우선적으로 서겠다는

일종의 다짐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일지 생각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자.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아라

제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에 유배를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유배 생활이 끝나게 되었음을 선포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이사 40,3)

하느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며,
거친 곳을 평지로, 험한 곳을 평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마르 1,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곧게 내고,
당신의 길을 마련하는 일을 해 나가라고 명하신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어 재림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한다.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2베드 3,10)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그날에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자.